

#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

- 16·17세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a Register List of Sosoo-Seowon School(紹修書院)

- Mainly for the 16·17 Century

송 정 숙 (Song, Jung-Sook)\*\*

## ◁ 목 차 ▷

1. 서론	3.1.2 출신 지역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2 입원생의 입원 연령과 과거 급제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3.2.1 입원·과거 급제 연령
2. 소수서원의 건립과 사액	3.2.2 과거 급제의 소요연한
2.1 건립 배경	3.2.3 과거 급제 연도
2.2 건립 과정	3.3 입원생의 성향
2.3 사액	3.3.1 학문적 성향
3. 「소수서원 입원록」 분석	3.3.2 정치적 성향
3.1 입원생의 인적 구성	4. 결론
3.1.1 입원 연도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소수서원의 건립과 사액과정을 살펴보고 「소수서원 입원록」 제 1권을 대상으로 16·17세기 소수서원 입원생의 인적 구성, 입학연령과 과거 급제 학문적·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하였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향교를 이천하고, 이어서 주자의 학문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주자의 백록동서원의 예에 따라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후임 풍기군수인 이항의 요청으로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척신세력의 지원이 있었다.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에 수록된 1543년부터 1606년까지의 입원생 735명을 대상으로 입원 연도를 분석한 결과 입원생은 한 해에 평균 5명이 입학하였다. 입원생은 1550년대에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신지역은 제주도·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입원하였는데, 경북이 610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입원생의 연령은 9세부터 59세로 이즈음보다 입원연령의 폭이 넓었으며, 이즈음처럼 20대가 가장 많았다. 생원진사시 합격연령은 14세부터 66세이고, 문과 급제 연령은 23세부터 60세로 이즈음보다 고령에도 과거시험에 도전하여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시험이 관료진출만이 목적이 아니라 급제 사실 자체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었던 조선중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급제 정도를 보면, 735명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가 313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대과 합격자는 99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였다. 서원에 입원한 후 20년이 지나면 전체의 38%가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전체의 11%가 문과에 급제한다. 과거급제연도를 보면 입원이 일어났던 1590년대를 제외하고는 1550년대부터 1610년대까지 평균 매년 3~4명씩 합격하였고, 문과는 1560년대부터 1600년까지 평균 매년 1~2명이 급제하였다. 1650년 이후 급제자가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접수일: 2006년 8월 10일 최초심사일: 2006년 8월 11일 심사완료일: 2006년 9월 22일

이 시기에 입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과는 정규시험인 식년시보다 비정규시험이 더 많이 시행되었으며, 1회에 1~2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소수서원 입원생들은 상당수가 퇴계 이황의 제자로서 영남학파에 속하며, 소수서원 입원생들이 도산서원 창설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동인 남인이 다수이지만 서인과 북인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였다.

要語 : 소수서원 입원록, 소수서원, 백운동서원, 주세붕, 이황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accreditation of Sosoo-Seowon School(紹修書院) by the King and to analyze the composition of students, when to enter the School, from where they come, what age to enter, when to pass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and what their academic, political inclination are, based on the 1st volume of the Register List of the Schoo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Sosoo-Seowon School(紹修書院) was established at Poonggee by Chu Seboong in 1543, and the King Myungjong accredited by the request of Lee-Hwang in 1549.

735 students were admitted to this School during the years from 1543 through 1696, with an average of five new students per year. In the 1550s, the size of registered students was the largest. After 1640s, recruited students decreased because of the opening of many other schools.

Students came from many areas across the country except Hamkyung-Do, Pyungan-Do, and Jeju-Do. 83% of the students came from Kyungsangbuk-Do Province. The age of students were 9 to 59 years old. But the largest group of students were in their twenties.

Out of the total 735 students,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for Seonggyunkwan National College called *Sangwon-Jinsa-Si* (生員進士試) were 313. And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passed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called *Moonkwa*(文科) were 99.

The graduates' academic inclination of the School belonged to Youngnam Academic School which was inherited from Lee Hwang's Discipline. And their political inclinations were complicated, while most of their political parties being Dong-In and Nam-In, and Buk-In and Seo-In being a bit.

Key words : the Register List of Sosoo-Seowon School(紹修書院 入院錄),  
Sosoo-Seowon School(紹修書院), Baekundong-Seowon School(白雲洞書院),  
Lee Hwang(李滉), Chu Seboong(周世鵬)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책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인 서지학은 문자를 수단으로 표현한 본문과 그 본문이 나타내주는 지적 소산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형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비평·연구·기술하는 학문이다.<sup>1)</sup>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서지학 연구는 책의 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형태에 치중한 감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사회는 사자에게 단순히 책이나 문헌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책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맞춤형 정보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sup>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서지학의 연구나 교육도 지적 소산인 내용을 분석·비평하는 방향으로 영역을 확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까지 서원에 대한 연구는 서원의 성립과 발전·폐단, 정치적 역할과 성향, 경제적 기반, 교육활동과 제도,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위상 등 정치·경제·사회·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원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도 과거에는 실록 등의 연대기자료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열읍원우사적 列邑院宇事蹟」, 「조두록(組頭錄)」과 각종 문집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원등록(書院謄錄), 서원지(書院誌), 서원일기(書院日記), 통문(通文) 등의 고문서가 연구에 이용되어 서원의 구체적인 활동양상이 밝혀지고 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원에 입원하여 공부한 유생들의 명부인 '입원록(入院錄)'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서원의 입원생 명부인 「소수서원 입원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수서원에 학생이 한 해에 몇 명씩 입원했으며, 어느 지역에서 왔으며, 입원생

1)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편, 「서지학개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12.

2) 박준식, “대학사서, 21세기의 선택”,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주최 문정포럼 발표문, 2002.12.11.

3) 鄭萬祚, “最近의 書院研究 動向에 관한 檢討”, 『朝鮮時代 書院研究』(서울: 집문당, 1997), 329-353 참조.

의 나이는 몇 살이며, 과거시험에는 몇 살에 합격했으며, 서원에 입원한 지 몇 년 만에 합격하는지 등 소수서원 입원생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소수서원에 창립과 정착과정을 살펴 이에 대한 이해를 도움과 아울러 서원에서 수학한 유생들의 학문적·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소수서원에 수학했던 유생들의 명부인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sup>4)</sup> 제1권은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1543년부터 1696(숙종 22)년까지 153년 동안 소수서원에 입원한 유생 735명의 명부로서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고,<sup>5)</sup> 제2권은 1790(정조 14)년부터 1888(고종 25)년까지 98년간의 입원생 1,791명의 명부로서 현재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1543년부터 1696년까지 소수서원 입원생의 명부인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이며, 따라서 16·17세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2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 입원록 제1권은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이 창건되던 해인 1543년부터 1696년까지의 입원생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표지 내면의 “萬曆己未十二月備藏”이란 한 기록과 제 장 제점 하단의 “改書冊”이란 기록은 이 입원록의 제작 경위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萬曆己未年(1609년) 12월에 院長 權俊臣과 有司 李植이 기존에 있던 入院錄을 개서하여 새로 등본을 마련하였고, 이 개서책의 뒤에 이후의 입원사실을 기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入院錄의 제작년도는 개서책이 제작된 萬曆己未年(1609년)부터 최후의 등재자인 安瑞羽(1664-1735년)가 서원에 입원한 丙子年(1696년)까지로 추정할 수 있다.

4) 서원에 입원하여 수학했던 유생들의 명부는 ‘靑衿錄’, ‘入院錄’ 혹은 ‘遊院錄’으로 불리웠다

5)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은 <정진형(鄭鎭炯), “도산서원 소장 「소수서원 입원록」 해제, 『退溪學研究(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제7집(1993. 11) >에 원본 영인과 함께 학계에 소개되었다. 현재 도산서원고문서는 안동에 소재하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보존되고 있다.

서지사항을 보면, 오침안정의 성책(成冊)고문서로서 앞뒤 표지 포함 총 57장으로 된 필사본으로 크기는 35.4 x 25.2cm이다. 개서한 己未年(1609)까지는 1면 8행의 형식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그 이후는 1면에 5-8행으로 행수의 가감이 있고 필체가 상이함으로 볼 때, 이때부터는 유생들이 입원할 당시의 유사나 아니면 입원생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다.<sup>6)</sup> 기재된 사항은 입학년을 간지(干支)로 기재하고 다음 행에 입원생의 이름, 자, 거주지, 과거합격사항을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역사적 연구방법으로서 소수서원의 건립에서 사액받기까지의 과정을 당시에 생산된 문서나 편지 등의 기록과 실록 등을 통해 사건 전개순으로 살펴보고, 입원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전기사항을 「사마방목」이나 「문과방목」 등 인명록에서 입원생의 생몰년과 과거합격사항, 거주지 등을 보충한 후 연도별 입원생의 현황, 입원생의 출신지역, 입원·과거급제 연령, 입원 후 과거급제까지의 소요연한, 연도별 과거급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산 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과의 비교를 통해 입원생의 학문적 성향을, 입원생의 생애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추론하였다.

## 2. 소수서원의 건립과 사액

여기서는 순흥부 백운동에 안향을 배향하는 사당과 서원의 건립과정과 배경, 서원 재정확보, 사액 요청과 승인 등 서원의 건립에서부터 정착까지의 과정을 사건 전개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1 건립 배경

사교육기관인 서원이 출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인 관학이 제

6) 鄭鎭柯, “도산서원 소장 「소수서원 입원록」해제,” 『退溪學研究(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제7집(1993.11), 143.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앙보다도 지방의 향교가 특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sup>7)</sup>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며 현재(賢才)는 국가의 이기(利器)”<sup>8)</sup>임에도 불구하고 기묘사화 등을 거치면서 지방의 공교육은 피폐해졌다.

“인재를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이고, 유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에 있어서 급선무이다. 서울에는 관학의 교육제도가 매우 잘 갖추어져 학문에 힘쓰므로 많은 선비들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향교에는 선비가 모이지 않아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교육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바가 있어 세상에서 병폐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sup>9)</sup>고 한다. 그리하여 지방관으로 부임한 주세붕에게 학교의 재건은 당면과제였다. 주세붕은 우선 향교를 이전 건립하였다.

1541(중종 36)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학교를 일으키고 힘쓰는 것을 급선무로 하였다. 그런데 향교가 무너지고 터가 좁으므로 옮길 것을 계획했다가 가뭄이 심해 옮기지 못했다. 당시 진사 황빈(黃彬)이 미곡 50석을 바치자 경상감사 이청(李清)에게 향교의 이건을 청하여 터를 다시 잡아 새로 향교를 건립하였고 이듬해(1542년) 다시 경상감사 임백령(林百齡)에게 청하여 많은 어염(魚鹽)을 보조 받았다.<sup>10)</sup>

이처럼 지방관인 주세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상감사 이청과 임백령, 지역선비 황빈의 후원으로 향교를 이관하였다.

한편 중종반정을 주도한 공신세력은 새로운 정치를 펴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여, 성균관과 사학을 수리하고 스승이 될만한 유학자를 선발하여 학관[교사]으로 임명하여 공교육을 부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성종조 이래

7) 정만조,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中宗年間 士林을 위한 敎學振興策 과 관련하여”, 『朝鮮時代 書院研究』 (서울: 집문당, 1997), 11-48 참조.

8) 『중보문헌비고』 권203, 학교교 2, 태학2.

9) 朴承任, “소수서원 유사 대신 호조에 올림(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雲院雜錄』, 『국역 소수서원잡록』 (영주: 영주시, 2005), 41.

10) 金仲文, “소수서원 창건 시말(紹修書院創建識)”, 『雲院雜錄』, 『국역 소수서원잡록』 (영주: 영주시, 2005), 48-49.

훈척의 후예가 주류였던 공신계열은 사림이 발호할까 염려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광조 계열의 신진사류들이 자파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기한 정몽주, 김굉필의 문묘중사운동에 대해 공신계 남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의 강도지(講道地)에 사우를 세울 것을 건의한 것이 서원을 건립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sup>11)</sup> 주세붕을 조정에 천거한 사람은 남곤으로<sup>12)</sup> 남곤의 이러한 입장은 주세붕에게 서원설립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 하겠다.<sup>13)</sup>

그리고 안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가 안향을 배양하는 최초의 서원을 건립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백운동서원에서 교육지표로 설정한 안향의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04(충렬왕 30)년 찬성사 안향이 학교가 날로 쇠함을 근심하여 양부(兩府)에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부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함이 없거늘 지금 양현고(養賢庫)가 고갈하여 선비를 기를 수 없으니, 청컨대 6품 이상은 각각 은 1근을 내게 하고 7품 이하는 포를 차등있게 내도록 하되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은 두고 이식만 취하여 섬학전을 삼을 것이다.”고 하니 양부가 이를 좇아 아뢰니 왕이 내탕고의 전곡을 내어 도와주었다. (중략) 안향이 또 남는 돈으로 박사 김문정(金文鼎)을 중국 관내에 보내 공자 및 70자[七十子: 공자의 유명한 제자 70명]의 초상화와 함께 제기, 악기, 6경(六經), 제자사(諸子史) 등의 서책을 사 오게 하였으며, 또 밀직부사로 치사한 이산과 전법판서 이진을 추천하여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教授都監使)로 삼으니 이에 금내 학관(禁內學館), 내시 삼도감(三都監), 5고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선비들 및 7관(七官) 12도(十二徒)의 유생학생들로서 와서 배우는 자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sup>14)</sup>

11) 이수환, “서원건립활동”, 『한국사』2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284.

12) 주세붕에 대한 인물평을 보면, <주세붕은 어질고 근엄한데다 재주가 있어 말세(末世)의 명사(名士)라 하겠다. 오직 도(道)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고 권세에 붙는 병통이 있었다.>, <사신은 논한다. 주세붕은 아침을 잘하고 비루하여 처음에는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에게 빌붙어 청반(淸班)에 올랐고, 나중에는 이기(李芻)의 추천을 받아 외군(外郡)에서 들어와 시종(侍從)이 되었는데 논의를 이기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에 힘썼다.>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11월 23일(辛丑)

13) 정만조 (1997), 12-24 참조.

14) 『고려사』, 권105, 列傳 제8, 安珣

안향의 업적은 장학기금인 섬학전을 마련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興學]과 주자의 학문을 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동방의 문신 가운데 성교(聖敎)에 공이 있고 치도(治道)에 도움이 있는 이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도록 하여 포장(褒獎)하고 존숭(尊崇)하는 은전을 보였으니,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과 설충(薛聰)·안향(安珦)이 바로 그분들입니다.<sup>15)</sup>”에서 볼 수 있듯이 안향이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주자학을 일으키는데 세운 공이 지대할 뿐더러 조선조로 볼 때 전조(前朝)의 인물로는 유일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곳 순흥이 바로 안향의 고향이므로 교육의 지표로 안향을 설정하는 것은 조정과 지역사회 모두의 지지를 받을 일이다. 그리고 안향이 조선조의 사림이 아니라 고려조의 인물이라는 점도 사림을 견제하는 훈구파나 척신세력의 반대를 피하고 지지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 2.2 건립 과정

주세붕은 1541(중종 36)년 5월 22일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자 곧 안향의 출생지인 죽계를 방문하고 서원보다 먼저 사당을 건립하고자 작심했다.

이 고을에 부임할 것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3일이 못되어 죽계를 방문하니, 이는 순흥 옛 고을과 가까운 거리로서 숙수사(宿水寺)의 폐지였습니다. 중국의 여산에 못지않은 구름이며, 산이며, 언덕이며, 강물, 그리고 하얀 구름이 항상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감히 이 곳을 ‘백운동’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감회에 젖어 배회하다가 비로소 사당 건립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sup>16)</sup>

주세붕은 안향의 유허가 잡초에 묻혀 있으므로 해의 풍흉과 남들의 비웃음을 생각하지 않고 1542년에 사당 건립을 감행했다.<sup>17)</sup>

1543년에 별도로 사당 앞에 서원을 세웠는데,<sup>18)</sup> 무릇 30여 칸이나 되었다.

1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19일(壬戌).

16) 주세붕, “목사 안위(安偉)에게 보내는 편지”, 『國譯 竹溪志』(영주: 영주시, 2002), 72.

17) 황준량의 편지, 『國譯 竹溪志』(영주: 영주시, 2002), 79.

18) 주세붕, “竹溪志序”, 『國譯 竹溪志』(영주: 영주시, 2002), 35.

사묘를 두어서 문성공(文成公) 안향을 봉향하며 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과 문경공(文敬公) 보(輔)를 배향하고, 당재(堂齋)와 정우(亭宇)를 그 곁에 건립하였다.<sup>19)</sup> 서원 설립도 주위의 지지가 아니라 조소와 비방 속에서 오로지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건립한 것을 본받겠다는 굳은 의지로 실행하였다. 주세붕은 주위의 비난에 대해 “내가 한 일은 모두 회옹(晦翁 : 주자)을 본받은 것이다. … 주자의 어짐은 맹자에 앞서고, 주자의 꿈은 공자와 짝할 만하다.”<sup>20)</sup> 라고 하였다.

서원을 건립하고 난 후에는 원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책과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니 이는 “목사 안위에게 보내는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땅을 판 지 1자도 못 되어 늦쇠 120근을 발견하였다. 이에 제기를 마련하고 사당지 기에게 보관하려 하였으나, 도난의 염려가 있어 배 10동[500필]에 준하는 값으로 정하여 곧 한성으로 보내어 사서, 삼경,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典)」, 「대학연의(大學衍義)」, 「통감강목(通鑑綱目)」 및 유학의 도를 밝히는 기타 서적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서원에 비치하여 후일 유생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교재로 삼도록 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사당을 세웠고 사당 앞에 서원을 세웠으니 두 가지 일은 이미 마쳤고 부족한 것은 서책뿐이니 엿드려 바라건대 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사당 곁에 본래 공전이 사유로 되었던 것을 사당에서 다시 환수해서 위전(位田)을 만들고, 또한 별도로 賣米 40섬을 비치하여 유생의 수업에 이바지할 음식의 비용으로 삼아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경서와 성리서 몇 질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사문을 좋아하는 유림이 좋은 서적을 기증하여 이를 모두 한권의 책자에 기록하고, 다시 몇 질을 해서(楷書)로 기록해서 1부는 여기에 비치하고, 1부는 귀택의 집안에 부쳐 드립니다.<sup>21)</sup>

이처럼 주세붕은 사서, 삼경,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 「대학연의」, 「통감강목」 등을 구입하고 인쇄나, 기증 혹은 필사를 통해 서책을 확보하고 이를 모두 장서목록에 기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서원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는 지역 선비 황빈과 경상감사의 도움에 크게 힘입었다.<sup>22)</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빈은 향교를 이긴할 때 미곡 50석을 기증한

19) 李滉, “上沈方伯書 通源”, 「국역 퇴계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8), 186.

20) 주세붕, “竹溪志序”, 「國譯 竹溪志」, 36.

21) 주세붕, “목사 안위(安瑋)에게 보내는 편지”, 「國譯 竹溪志」, 72.

22) 榮州市, 「雲院雜錄」, 「國譯 紹修書院雜錄」 (영주: 榮州市, 2005), 41 참조.

데 이어 서원을 건립할 때 45석을 기증하였다. 서원이 재정확립에 경상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니, 향교 건립할 때 도운 임백령과 서원 건립할 때 도운 이언적, 건립 후의 안현 등을 들 수 있다.

1543(중종 38)년에 이언적은 임백령의 후임으로 경상감사가 되어서 염곽(鹽藿)을 내려주었다. 안향의 후손인 경상감사 안현은 서원이 정착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23)</sup> 안현이 경상감사로 부임한 것은 주세붕이 풍기군수를 물러난 지 약 반년 후인 1546(명종 원년)년 정월 17일이고, 퇴임한 것은 다음해 2월 19일이다. 감사 재임 중 제포의 어기(漁基) 3처와 영덕의 염분(鹽盆) 2좌(坐)를 백운동서원에 소속시켜 유생 공궤에 필요한 어염의 걱정을 덜게 하고, 속공 노비 10여 구를 제공하고, 또 각 관하 각 고을에 명하여 백미, 혹은 장태(醬太), 혹은 등유(燈油) 기타 잡물을 보내게 하고 여유가 있으면 존본취리(存本取利)하여 전지(田地)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백운동서원은 토지 약 30결(結)과 노비 수십 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선비 황효공(黃孝恭), 황준량(黃俊良), 안공신(安公信) 등과 함께 서원 운영에 관한 제반 규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문입의(斯文立儀)」를 제정하여 서원의 재정과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sup>24)</sup>

이처럼 서원이 건립되고 난 뒤에도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경상감사가 계속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서원이 교육기관으로 지속하려면 성균관처럼 학비가 무료임은 물론 숙식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학생들이 모여들고 학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공감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2.3 사액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서원에 “1549(명종 4)년 명종이 편액을 하사하고, 경서

23) “주세붕이 풍기군을 떠나니, 문성공의 후예인 지금 판서공(判書公) 안현(安瑛)이 마침 와서 도를 안찰하며 묘당에 배알하고 선비들을 정중히 대우하며, 더욱 발전시키고 진흥하는 방책을 극진히 하며, 노비의 숫자를 늘리고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등 조처하지 아니함이 없어 길이길이 힘입도록 하니, 이로부터 감사로 오는 이마다 또한 모두 여기에 뜻을 두고 장려하여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李滉, “上沈方伯書 通源.” 앞책, 186.

24) 榮州市, 「國譯紹修書院雜錄」(영주: 榮州市, 2005), 41.

를 내려주면서 국학의 사례에 의거하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원근이 흠모하고 학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사시사철 상주하는 학생이 많을 때에는 20여명에 이르렀다”<sup>25)</sup>고 한다. 이처럼 백운동서원에 대한 국가의 공인과 재정적 지원은 서원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백운동서원의 사액에는 풍기군수 이황과 척신세력의 역할이 컸다.

1548(명종 3)년 1월에 이황이 단양군수로 임명되었는데 10월에 풍기 군수로 전임되었다. 형 대헌공이 충청감사가 되자 단양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뀐 것이다. 이황은 이듬해인 1549(명종 4)년 12월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서원이 없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sup>26)</sup> 위에서 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 혹시 그대로 없어져 버릴까 염려하여 경상감사 심통원(沈通源)에게 글을 올려 임금에게 알려, 송나라의 고사에 의거해서 책을 보내줄 것과, 편액을 왕명으로 내려 줄 것과, 겸하여 토지와 노비를 주어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있게 마련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주세붕이 노력하여 서원을 세웠어도 주자가 남강을 떠난 지 10년이 채 못 되어 장절정의 문이며 담장이며 정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중국의 백록동서원을 연상하면서 국가의 공인이 없다면 소수서원도 10년간의 보존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황이 국가에 공인과 재정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백운동서원의 사액과정에 척신세력의 지원도 상당히 작용하였다. 풍기군수 이황이 국왕에게 직접 사액을 요청하지 않고, 경상감사 심통원을 통해 요청함으로써 심통원과 그의 동생이며 명종의 외척인 심연원 등 척신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을 다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25) 朴承任, “소수서원 유사 대신 호조에 올림(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雲院雜錄』, 『국역 소수서원잡록』 (영주: 영주시, 2005), 42

26) [예조서원록(禮曹書院錄)에, 진천(鎭川)의 백원(百源)과 함흥(咸興)의 문회(文會)는 그 창건이 소수서원 전에 있었는데,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문집(文集)에 있기를, “중국에 아직 서원이 없었는데, 소수서원 창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증보문헌비고』 권209, 학교고8, 부록 서원.] 정확히 말하면, 서원이라기보다는 사액서원이 소수서원에서 비롯되었다.

27) 정만조 (1997), 39-40 참조.

이황이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주세붕의 뜻을 훌륭히 여기고, 오래 전승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언을 갖추어 계문하였기 때문에 삼공과 예조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하였다. 영의정 이기, 좌의정 심연원, 우의정 상진, 예조 판서 윤개, 예조 참의 서고(徐固)가 의논드렸다. “풍기의 백운동서원은 황해도 관찰사 주세붕이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창립한 것인데, 그 터는 바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sup>28)</sup>가 살던 곳이고, 그 제도와 규모는 대개 주문공(朱文公)이 세운 백록동(白鹿洞)을 모방한 것입니다. 무릇 학령(學畝)을 세우고 서적을 비치하며 전량(田糧)과 공급의 도구를 다 갖추어서 인재를 성취시킬 만합니다. 이황이 편액(扁額)과 서적·토지<sup>29)</sup>·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다 따라줄 수는 없으나 편액과 서적 등 2~3건만이라도 특별으로 내려 보낸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고무 감격하여 흥기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주세붕이 마련해준 것이 부족하지 않으니, 그대로 놓아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장획(臧獲)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환(使喚)할 사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생이 글읽기로는 고요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감사와 수령이 학업을 권장하려고 교령(敎令)을 번거롭게 내려 단속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장수유식(藏修游息)의 도(道)에 어긋날까 염려되니, 동요시키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sup>30)</sup>

이와 같이 경상감사 심통원과 척신세력인 심연원 등이 우호적으로 조정에 보고 하니, 조정에서는 서원의 이름을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하고, 대제학 신광한(申光漢)을 시켜 기문을 짓게 하였으며, 사서·오경과 「성리대전」 등의 책을 내려 보냈다. 서원의 흥성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sup>31)</sup>

서원의 편액을 “소수(紹修)”라 하였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서원의 편액을 “소수(紹修)”라 한 것은 주자가 주례계와 정이천·정명도의 학문을 이어서 경(敬)을 주로 하여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 치지(致知)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른바 서로 이어서 닦는 도[相紹以修之道]이다. 지금 세월이 갈수록 더욱 단절되고 있는 문성공 안향의 위기(爲己)의 학문을 계승하여[悠久紹絕] 제각기 몸을 닦아[各修於身] 성(誠)을 간직하고 경(敬)을 주체로 하여 오직 정밀하고 전일하게 하여 게으르지 않다면 주자가 한 일과 같다. 안향의 뒤를 안축과 안보가

28) 본래 이름은 향(珦)이었는데 어휘(御諱)를 피하여 유(裕)라 하였다.

29) 조선시대에 학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토지, 즉 학전(學田)을 지급하였으며, 이 토지는 면세되었는데, 사액서원에는 3결이 지급되었다. 「경국대전」의 호전(戶典)에서 학전을 보면, 성균관은 400결, 사학(四學)은 각각 10결, 주(州)·부(府)의 향교는 7결, 군·현의 향교는 5결, 사액서원은 3결이다. 賜額을 받지 못한 書院이면 免稅位田을 갖지 못한다.

30)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 2월 11일(丙午).

31) 李滉, 「退溪集」, 年譜. 선생 49세조.

계승하였고, 안축과 안보의 뒤를 주세붕과 이황이 계승하였으니, 그 학문을 추모하여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 후학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백록동서원은 이발(李渤)이 거처했던 곳으로 이발의 자취를 이어 그 유희를 개척한 이가 주자(朱子) 이다. 백운동을 백록동에 견주고, 서원의 흥폐도 그곳에 견준다면 이 역시 소수(紹修)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이처럼 ‘소수(紹修)’는 이발이 거처했던 곳에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세워 학문을 계승하여 닦았듯이, 안향이 거처했던 곳에 서원인 이곳에서 안향의 학문을 계승하여[紹] 닦으라[修]는 뜻을 알 수 있다.

서원의 사액 이후에도 안수와 심연원 등에 의해 소수서원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경연의 주장에서 설경(說經) 안수(安璣)가 명종에게 “경상도 풍기군에 소수서원이 있는데, 이는 고려사람 안유(安裕)가 살던 고장입니다. 도내의 유생들이 모두 모여들어 마치 주문공(朱文公)의 백록동(白鹿洞)과 같습니다. 그런데 뜻 있는 선비들이 제반 서책을 박람하고자 하나 궁벽한 시골이라 서책이 귀하여 선비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책을 간행할 때 한 질씩 반사하소서.”<sup>33)</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조강에서 영경연사 심연원(沈連源)이 명종에게 아뢰기를 “풍기 땅에 있는 소수 서원은 유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전에 경연관의 아뢰에 의해 이미 「사서」, 「오경」을 하사하였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강목(綱目)」과 「사문유취(事文類聚)」입니다. 나라에 여분이 있으면 특별으로 하사하게 하소서 그러면 학문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소수서원에 책을 하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sup>34)</sup>

이로 볼 때 1550(명종 5)년 2월 11일에 1차로 「사서」, 「오경」을 하사하고 1552(명종 7)년 4월에 2차로 「강목」과 「사문유취」를 하사했음을 알 수 있다. 임고 서원에 사액할 때에는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사서」, 「오경」과 「강목」, 「사문유

32) 趙澄, “紹修書院記”, 「雲院雜錄」, 「國譯紹修書院雜錄」, 66.

33)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3월 28일(庚戌).

34)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4월 25일(丁丑).

취」에 내사기를 적고 내사인을 찍어 하사하였다.<sup>35)</sup>

### 3. 소수서원 입원생의 인적 구성

「소수서원 입원록」은 소수서원에 수학했던 유생들의 명부로서 현존하는 것은 도산서원에 소장된 제1권과 소수서원에 소장된 제2권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제1권은 1543(중종 38)년부터 1696(숙종 22)년까지 153년 간의 입원생 73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sup>36)</sup>

#### 3.1 입원 연도

소수서원에 한 해 몇 명씩 입원했는지 입원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

- 35) 예조가 아뢰기를, “정몽주의 도덕과 절행은 안유(安裕)에게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가 성장한 곳에 서원을 세워 학도들이 학문을 닦게 하고 풍화가 도타와지게 장려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므로, 편액을 하사하고 서책·노비·전결(田結)을 하사하는 일들을 한결같이 소수서원(小守書院)의 예에 의해 시행하라는 일로 진교하였습니다. 노비와 전결은 본도 감사의 계본에 따라 이미 해사에 이문(移文)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책은 소수서원의 예대로 「사서」, 「오경」 1권을 문무루(文武樓)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내려 보내고, 「강목」 및 「사문유취(事文類聚)」는 남아 있는 것이 1 질뿐이어서 내려주기가 곤란하니 이밖의 교서관이 사온 책 중에서 「소미통감(少微通鑑)」·「통감속편(通鑑續編)」을 1 질씩 내려 보내되 책마다 첫째 권에 연월일과 ‘내사임고서원(內賜臨臯書院)’이라고 써서 내려 도타이 장려하는 뜻을 보이고 편액은 ‘臨臯書院’ 4글자를 큰 글자로 쓰되 아래쪽에 연월일과 ‘宣賜’ 등의 글자를 함께 새겨서, 공사(公事)를 보는 사람 편에 부쳐 그 도의 감사에게 교할(交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11월 2일(己亥).
- 36)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과 제2권을 합하면, 현재 밝혀진 입원생은 2,526명이다. 그런데 1697년부터 1789년까지 92년간은 기록이 없으므로 이 기간의 입원생 수를 알 수 없으나 제1권의 비율대로 입원했다면 입원생이 500여 명이 될 것이고, 제2권의 비율대로라면 입원생이 1,500여 명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소수서원에는 1543년부터 1888년까지 345년 동안 적게는 3,000여명에서 많게는 4,000여명의 유생들이 입원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심성을 닦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서홍, “신재(愼齋) 선생과 紹修書院, 文敏公 愼齋 周世鵬先生 誕辰500週年 追慕學術大會 발표문,(1994.11.26.), 참조.

과 같다.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1543년부터 1696년까지 153년 동안 이 서원에 입원한 유생은 735명으로 한해에 적게는 1명(1602년)부터 많게는 24명(1549년)의 유생이 입원하였다. 전체 평균을 보면 1년에 약 5명이 입원한 셈이다. 하지만 입원생이 급감하는 1640년 이후를 제외하면 1543년에서 1639년까지 96년 동안 713명이 입학하였으므로 한 해 7~8명이 입학하였다고 하겠다. 명종 원년에 경상 감사로 부임한 안현(安瑄)이 서원의 재정을 보충하고 사묘와 서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규정해 놓은 <사문입의(斯文立議)>에 의하면, 입원정원이 10인인데, 31년 동안은 한 해에 10명 이상이 입원하였으니, 정원이 초과되었다.

입원생의 규모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50년대에 119명으로 최고조를 이루었으며, 임란이 일어났던 1590년대를 제외하고는 60명 이상을 유지하였다. 1630년대 47명으로 조금 줄어들더니, 1640년대 이후 입원생의 규모가 10명대로 현저하게 줄더니 1660년대와 1680년대에는 입원생이 없었다.

<표 1> 입원 연도

입원년	입원생수	%	비 고
1543-1549	85	11.6	1544·1545(11), 1546(18), 1547(12), 549(24)
1550-1559	119	16.2	1550(15), 1551(22), 1553(14), 1554·1559(13), 1556·1558(11)
1560-1569	99	13.5	1560(10), 1561·1567(11)
1570-1579	69	9.4	1570(12), 1578(11)
1580-1589	77	10.5	1581·1585(11), 1587·1588(14)
1590-1599	24	3.3	
1600-1609	61	8.3	1606(10), 1607(11)
1610-1619	78	10.6	1610(13), 1613(11), 1615·1616·1619(10), 1618(12)
1620-1629	61	8.3	1622(16)
1630-1639	40	5.4	1636(12)
1640-1649	12	1.6	1640(7), 1644(5)
1650-1659	5	0.7	1651(4), 1654(1)
1660-1669	0	0	
1670-1679	4	0.5	1672(4)
1680-1689	0	0	
1690-1699	1	0.1	1696(1)
계	735	100	( ) 안은 입원생수

입원생은 서원이 설립된 해인 1543년에는 박승건(朴承健, 순흥), 신원록(申元祿, 의성), 김팔원(金八元, 안동)의 3인이 입원했으며, 이듬해인 1544년에는 이계(李袞, 풍기), 권응참(權應參, 풍기), 금인(琴軫, 영주), 박열(朴悅, 밀양), 박문두(朴文斗, 예천), 민시원(閔著元, 영주), 권호금(權好金, 예천), 조숙(趙肅, 예안), 권숙란(權叔鸞, 풍기), 조목(趙穆, 예안), 권태수(權台壽, 예천)의 11인이 입원했으며, 이들의 출신지역도 영천, 풍기, 예안, 예천, 밀양으로 경상도이다. 안향의 11대손인 경상감사 안현에 의해 서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1546년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최담(崔暻)이 입원하여 입원생의 출신지역이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확대되었다. 이황이 군수로 있으면서 사액을 요청하던 1549년에 24명이 입원하여 입원생이 많았으며, 서원이 사액된 1550년 이후부터 서울에서 입원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범위가 확대되어 사액을 받은 후인 1550년대에 입원생이 가장 많았다. 1550년에는 민현(閔玼), 1551년에는 이순인(李順仁), 1554년에는 하응림(河應臨)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17세기 동안 50명 가까이 서울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1640년부터 1696년까지 57년 동안에는 1640년(7명), 1644년(5명), 1651년(4명), 1654년(1명), 1672년(4명), 1696년(1명)의 6년 동안만 입원생이 있고, 그외는 입원생이 없다. 이는 당시 서원의 수가 급증하여 원생이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sup>37)</sup>

### 3.2 출신 지역

소수서원의 입원생을 출신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서원에서 “독서는 사서오경을 근본으로 하되, 「소학」·「가례」로써 문호를 삼아야 한

37) 서원은 사림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된 선조대(1567-1608)에 들어와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는 선조 당대에 세워진 서원만 60여개가 넘었고, 22개소에 사액이 내려졌다. 그 뒤 현종대(1659-1674)까지는 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193개소가 설립되었다. 지역적으로도 경상도 중심에서 벗어나 전라 충청 경기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건립되었으며, 한강 이북에서도 차차 보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서원건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정파(政派)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나타난 현상이다. 정만조,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한국사』 3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8), 84, <표 2>, 조선중기 서원(사우)의 시대별·지역별 건립 수 참조.

다.” 는 것으로 미루어 교과과정이 성균관에 비금가는 수준이므로 서원은 이즈음의 사립대학에 해당한다. 입원생들의 출신지역이 서원이 소재한 경북지역이 610명(83%)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평안도와 함경도 및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서울·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등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공부하기 위해 모여 들었다. 이로 볼 때 전국적인 수준의 사립명문대학이라 할 수 있다.

<표 2> 출신 지역

지역		인원수(%)		지역		인원수(%)		지역		인원수(%)		
서울 경기	京	48	50 (6.8%)	경북	榮川	170	610 (83%)	충청 (2.8)	경북	大丘	4	
	水原	2			豐基	132			公州	1		
강원	原川	2	安東		120	槐山			1			
	江陵	2	禮安		30	丹陽			1			
	寧越	9	醴泉		25	報恩			2			
	三陟	1	龍宮		25	永春 (단양군 영춘면)			2			
	蔚珍	6	咸昌		15	黃澗			1			
	原州	7	尙州		18	堤川			5			
전라	扶安	2	善山		8	清安 (괴산군 청안면)			1	29 (3.9%)	清州	3
	高山 (원주군 고산면)	1	義城		5	惟新			8			
	南原	1	開寧		2	清州			3			
	경남 (1.8)	晋州	3		星州	3			清風		1	
金海		2	仁同		2	忠州		3				
密陽		6	義興		1							
泗川		1	軍威		1							
靈山		1	清道		4							
경북	奉化	12	平海		5							
	順興	2	寧海		2	미상		2	2 (0.3%)			
합계(100%)		735명										

경북에서도 풍기와 풍기에 인접한 영주[당시 榮川], 안동의 세 고을 출신이 422명으로 전체의 57%에 해당한다. 풍기 근처의 봉화·순흥·영주·예안·안

동·예천·용궁·함창·상주 등의 경북 북부지역 거주자가 55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소수서원이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학문 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4. 입원생의 입원 연령과 과거 급제

조선시대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인 과거에는 문관을 등용하기 위한 문과(文科)와 무관을 등용하기 위한 무과(武科)와 전문기술관을 등용하기 위한 잡과(雜科)가 있었다. 그 밖에 문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과의 일부가 아니고 또 관리 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도 아니었던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가 있었다. 그 중 문과나 무과 또는 이 양과를 합해 대과라고 했고, 생원·진사시를 소과라 하였다. 철저한 문치주의(文治主義) 아래에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문과와 생원진사시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이 두 과거는 한편으로 권력 및 권위와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 효도하며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였다.

문과의 응시 자격은 생원진사시와 같았다. 즉, 신분상의 하자만 없으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었다. 물론, 천인(賤人)과 공상인(工商人)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어떠한 제한, 예컨대 양반이어야 한다든가, 선대(先代)에 벼슬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든가 또는 농민은 안 된다든가 하는 등의 제한은 전혀 없었다.<sup>38)</sup>

하지만 과거 진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간의 수학이 필요하였으

38) 문과나 생원진사시의 응시 자격에 관해 어떠한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밝힌 예가 있을 뿐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국대전」에 나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한다면, 어떤 죄를 범해 평생동안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관정을 받은 이른바 죄범영불서용자(罪犯永不敘用者)의 아들, 관리로서 금전상의 부정을 범한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再嫁) 또는 그 밖의 부도덕한 행실을 저지른 부녀자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서열(庶孽)의 자손들(즉, 子子孫孫)은 문과나 생원진사시에는 응시할 수가 없었다. 즉, 이들이 바로 '신분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宋俊浩, “문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17701&ty=2].

므로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특히 교육 환경이 좋은 가정의 자손들이 아니고는 과거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양반들이 거의 독점하는 듯한 경향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결코 원칙은 아니었다.

#### 4.1 입원 · 과거 급제 연령

소수서원 입원생들이 몇 살에 서원에 입원하였는지, 몇 살에 과거에 합격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수서원 입원록에 명기된 735명 가운데 ① 사마방목이나 문과방목에서 생년이 명기되었거나 혹은 문집의 문인록 등을 통해 생년이 확인된 238명을 대상으로 서원입원연령을 조사 · 분석하였고, ② 생원진사시 합격자 313명 가운데 출생년이 확인된 212명을 대상으로 생원진사시 합격연령을 조사 · 분석하였으며, ③ 문과합격자 99명 가운데 출생년이 확인된 90명을 대상으로 문과 급제연령을 조사 ·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입원 · 과거 급제 연령

나이 (세)	서원 입원자			생원 · 진사시 합격자			문과 합격자		
	명	%		명	%		명	%	
		238명 기준	735명 기준		212명 기준	735명 기준		90명 기준	735명 기준
5-9	1	0.4	0.1	-	-	-	-	-	-
10-14	-	-	-	1	0.5	0.1	-	-	-
15-19	24	10.1	3.3	4	1.9	0.5	-	-	-
20-24	90	37.8	12.2	40	18.9	5.4	4	4.4	0.5
25-29	70	29.4	9.5	49	23.1	6.7	18	20	2.5
30-34	29	12.2	3.9	48	22.6	6.5	24	26.7	3.3
35-39	14	5.9	1.9	24	11.3	3.3	11	12.2	1.5
40-44	4	1.7	0.5	25	11.8	3.4	17	18.9	2.3
45-49	2	0.8	0.3	10	4.7	1.4	8	8.9	1.1
50-54	3	1.3	0.4	5	2.4	0.7	6	6.7	0.8
55-59	2	0.8	0.3	2	0.9	0.3	1	1.1	0.1
60-64	-	-	-	3	1.4	0.4	1	1.1	0.1
65-69	-	-	-	1	0.5	0.1	-	-	-
소계	238명	100%	32.4%	212명	100%	28.8%	90명	100%	12.2%

#### 4.1.1 입원 연령

16·17세기에는 이즈음의 사립대학에 해당하는 서원에 몇 살에 입원했는지 분석한 결과, 위 <표 3>에서 보듯이 20-24세에 입원한 유생이 90명(약 38%)으로 가장 많고, 25-29세에 입원한 유생이 70명(29%), 30-34세에 입원한 유생은 29명(12%), 15-19세에 입원한 유생은 24명(10%)의 순이다. 20대인 20-29세 사이에 160명이 입원하여 238명의 67%, 735명 전체의 약 22%에 해당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23세(24명), 24세(23명), 29세(19명), 27세(18명), 26세(17명), 20세(15명), 19·21·22세(14명)의 순으로, 19세-29세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이 입원하였다. 19세는 이즈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나이가 비슷하다. 20대 후반의 입원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즈음보다 입원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지만, 9세부터 59세까지 함께 입원하는 것을 볼 때 입원연령의 폭은 이즈음보다 훨씬 넓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입원한 사람은 소수서원 인근인 영주에 사는 민응기(1540-?)로 9세인 1549년에 입원하여 30세(157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영주에 사는 김연조(1585-1613)는 15세(1600년)에 입원하여 25세(1610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2년 후인 27세(1612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즈음으로 보면 대학에 입학하기에는 비교적 고령이라 할 수 있는 40세 이후에 입원한 사람은 11명으로 40대에 6명, 50대에 5명이다. 40대 입원자는 하응도(40세 입원, 33세 진사시 합격), 민운서(41세 입원, 진사시 합격), 오여별(43세 입원, 22세 생원시, 24세 문과 합격), 박안흠(43세 입원, 생원시 합격), 송효조(45세 입원, 32세 생원시 합격), 이순(45세 입원, 42세 진사시 합격)이고, 50대 입원자는 이진(50세 입원, 50세 진사시 합격), 김복홍(51세 입원, 24세 생원시 합격), 권만(51세 입원, 53세 생원시 합격), 장천기(55세 입원, 36세 생원시 합격), 장계훈(59세 입원, 33세 진사시 합격)이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입원하였고, 2명은 서원에 입원하는 해에 합격하였으며, 4명은 서원 입원후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가장 많은 나이에 입원한 사람은 榮川에 사는 장계훈(1572년-?)으로 1605년(3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6년 후인 1631년(59세)에 소수서원에 입원하였다. 나이 30-40세가 되면 문과에 급제하더라도 관료로 진출하기가 어려운 실정<sup>39)</sup>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는 서원의 입원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생원진사시 합격 자체가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여벌(1579년-1635년)의 경우 1601년(22세)에 생원시, 1603년(24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19년 후인 1622년(43세)에 소수서원에 입원한 사실을 보더라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학문을 연마한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컸다고 보아진다.

#### 4.1.2 과거 급제 연령

① 소과인 생원진사시에는 몇 살에 급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생원진사시 합격자 313명 가운데 생년을 알 수 있는 212명을 대상으로 생원진사시 합격연령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25-29세가 49명, 30-34세가 48명, 20-24세가 40명, 40-44세가 25명, 35-39세가 24명, 45-49세가 10명의 순이다. 21-35세에 합격한 사람이 137명으로 합격자의 65%에 이른다.

생원진사시 최연소 합격자는 14세(1612년)에 합격한 경북 봉화 출신의 김주우(1598-?)로서 서원에 입원하던 26세(1624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다음은 17세에 합격한 신열도와 오정일이다. 경북 의성 출신의 신열도(1589년-1659년)는 17세(1606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4세(1613년)에 서원에 입원했으며, 35세(1624년)에 문과 급제했다. 서울 출신의 오정일(1610년-?)은 17세에 서원에 입원하고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29세(1639년)에 문과 급제했다.

60대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도 4명으로서 61세에 합격한 이호음·이광

39) 문음 자체가 아닌 기타의 양반자제들은 출세영달의 꿈을 안고 겨우 문과에 합격하면 3관(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권지(權知, 임시직)로 6-7년을 지나서야 비로소 9품을 받고, 성균관은 8년, 예문관·교서관은 4년이 지난 후에 6품에 승진시키니, 나이 30세나 40세가 되어서 문과에 합격한 자는 장차 3관에서 늙어버리고 마는 형편이었다. 이성무, 「한국과거제도사」(서울: 민음사, 1997), 455;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10월 壬戌

계, 62세에 합격한 반홍, 66세에 합격한 백현룡이다. 최고령으로 합격한 백현룡(1543년-1665년)은 영해 출신으로 26세(1569년)에 서원에 입원했는데, 40년 후인 66세(1609년)에 합격했다.

② 문과에는 몇 살에 급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문과급제자 99명 가운데 생년을 알 수 있는 90명을 대상으로 문과 합격 연령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30-34세가 24명, 25-29세가 18명, 40-44세가 17명, 35-39세가 11명으로 나타났다. 25-34세의 10년 동안에 합격자의 반에 가까운 42명(약 47%)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원입원은 10세 이전에도 하고, 생원진사시는 10대에도 합격자가 나오지마는 문과 급제는 20대가 되어서야 가능했으며, 50대 이후에는 급제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연소합격자는 23세에 급제한 하응림과 손탁이다. 서울 출신의 하응림(1536-?)은 18세(1554년)에 서원이 입원하여 이듬해인 19세(155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3세(1559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수원 출신의 손탁(1587-?)은 21세(1608년)에 서원에 입원하여 22세(1609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23세(1610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50대에 합격한 사람은 박선장(50세 급제), 황응규·안담수·민희안(51세 급제), 안옥(52세 급제), 송광정(53세 급제), 권극명(57세 급제)의 7명이다.

최고령 문과급제자는 60세, 즉 환갑의 나이에 합격한 풍기 출신의 김경원(1589년-?)으로 20세(1609년)에 서원에 입원했고, 28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60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이처럼 고령에도 문과에 도전하는 것은 관료 선발을 위해 실시되었던 과거시험이지마는 응시자들은 관료진출이 목적이 아니라 급제했다는 사실 자체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문과 급제를 개인과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던 조선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생원진사시 합격 연령은 소수서원 입원연령보다 5년 정도 늦어지고, 문과 급제 연령은 생원진사시보다 또 5년 가량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간이 시험의 준비기간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4.2 과거 급제의 소요 연한

### 4.2.1 생원진사시 합격의 소요 연한

생원진사시는 조선시대 성균관에 입원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로서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한다. 생원·진사시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뉘어져 있었다. 생원시는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진사시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예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합격자에게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위를 수여하였다.

생원·진사시에는 3년에 한 차례씩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왕의 즉위와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이를 기념해 실시하는 증광별시(增廣別試)가 있었다. 이 시험에서 생원과 진사를 각각 100 인씩 뽑고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원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따라서 합격자 중의 일부 극소수가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으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관리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임용제로서 출발한 문·무과(文武科)나 잡과(雜科)와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달랐다.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에 기재된 735명의 유생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313명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합격사항은 ‘丙子司馬, ‘己卯司馬와 같이 <간지+司馬>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격한 연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합격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리하여 사마시의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에서 합격여부와 합격연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유생들이 서원에 입원한 후 생원진사시 합격까지 소요되는 연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생원진사시 합격의 소요 연한

입원 후 생원진사시 합격의 소요 연한(년)		생원진사시 합격자					
		인원수(명)		백분율 (%, 313명 기준)		백분율 (%, 735명 기준)	
-(21-30)	-(26-30)	2	3	0.6	1	0.3	0.4
	-(21-25)	1		0.3		0.1	
-(11-20)	-(15-20)	4	14	1.3	4.5	0.5	1.9
	-(11-15)	10		3.2		1.4	
-(1-10)	-(6-10)	15	62	4.8	19.8	2.0	8.4
	-(1-5)	47		15		6.4	
0		24		7.7		3.3	
1-10	1-5	70	125	22.4	39.9	9.5	17
	6-10	55		17.6		7.5	
11-20	11-15	39	55	12.5	17.6	5.3	7.5
	16-20	16		5.1		2.2	
21-30	21-25	16	21	5.1	6.7	2.2	2.9
	26-30	5		1.6		0.7	
31-40	31-35	1	4	0.3	1.3	0.1	0.5
	36-40	3		1		0.4	
미상		5		1.6		0.7	
계		313명		100%		42.3%	

위 <표 4>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입원생의 약 11%, 합격자의 25%에 해당하는 79명은 이미 소수서원에 입원하기 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했고, 24명은 서원에 입원하는 해에 합격했으며, 입원생의 약 28%에 해당하는 205명은 서원 입원 후 합격했다. 즉 입원생 10명 중 한 명은 생원진사시 합격자이고, 재학생 10명 중 3명은 입원한 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셈이다.

생원진사시에 특별 시험인 증광별시가 있기는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생원, 진사를 각각 100명씩만 선발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의 수학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그리고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지 않은 자라도 합격자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해야 하니 소수서원 입원자의 학력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소수서원에 입원하는 해와 입원 전후 5년 사이의 합격자가 141(47+24+70)명으로 합격자의 45%, 전체 입원생의 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로써 입원 후

5년이 되면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173명으로 입원생의 약 24%이므로 재학생 4명에 1명은 생원진사시 합격자임을 알 수 있다. 입원 후 6년에서 10년까지는 성적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합격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원진사시 합격자들 가운데 문과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은 월천 조목(趙穆)과 같이 학문, 즉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위해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사림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익어갈수록 여헌 장현광(張顯光)처럼 학문에만 정진한 이도 있었다.

#### 4.2.2 문과 급제의 소요 연한

소수서원 입원생 735명 가운데 문과 급제자는 99명으로 입원생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문과 급제자 99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서원에 입원한 지 몇 년 만에 문과에 급제하는지 그 소요 연한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문과 급제의 소요 연한

입원 후 문과 급제의 소요 연한(년)		문과 급제자					
		인원수(명)		백분율 (%, 99명 기준)		백분율 (%, 735명 기준)	
-(11-20)	-(16-20)	2	2	2	2	0.2	0.2
	-(11-15)	-		-			
-(1-10)	-(6-10)	-	2	-	2	-	0.3
	-(1-5)	2		2		0.3	
0		2		2		0.3	
1-10	1-5	18	40	18	40	2.4	5.4
	6-10	22		22		3.0	
11-20	11-15	23	39	23	39	3.1	5.3
	16-20	16		16		2.2	
21-30	21-25	9	11	9	11	1.2	1.5
	26-30	2		2		0.3	
31-40	31-35	-	2	-	2	-	0.3
	36-40	2		2		0.3	
미상		1		1		0.1	
계		99명		100%		13.4%	

위 표에서 보듯이 소수서원에 입원하기 11-20년전의 문과급제자는 2명, 입원하기 1-10년전의 급제자도 2명, 입원하는 해에 2명, 입원 후 1-10년 사이에는 40명, 11-20년 사이에 39명, 21-30년 사이에는 11명, 31-40년 사이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생원진사시와는 달리 문과는 급제자의 96%(94명)가 서원 입원 후에 급제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소수서원에서의 학문연마가 문과급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겠다.

둘째, 입원한 지 5년 안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20(2+18)명이나 되었다. 소수서원에 입원한 선비가 불과 4-5년 만에 명사가 되고 과거에 급제하니, 사람들이 “이 서원에 들어오면 문득 급제한다”<sup>40)</sup>고 한 것은 이를 두고 생겨난 말인 듯하다. 서원 창건 이후 주세붕은 자주 서원에 와서 머물면서 유생과 더불어 경의(經義)를 강론했는데, 그의 존현흥학(尊賢興學)의 정성으로 교화가 크게 떨쳐서 경향 각지에서 유생들이 모여들었고, 과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인다.

셋째, 문과급제 후에도 서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원에 입원하고 40년이 다 되어 급제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문과급제 후 19년에 입원한 오여별과 급제 후 13년에 입원한 정세미. 급제 후 2년에 입원한 안서우, 급제하고 이듬해에 입원한 전익희 등이다.<sup>41)</sup> 후자의 경우는 서원 입원 후 40년만에 문과 급제한 김경원과 입원 후 38만년에 문과에 급제한 권극명을 들 수 있다.<sup>42)</sup> 이들에게 문과는 관료로 진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과 급제 자체가 목적이었다

40) 「紹修書院謄錄」, 斯文立議 ; 정만조, (1997), 28-29.  
 41) 영주에 사는 오여별((吳汝撥, 1579- 1635)은 1601년(22세)에 생원시, 1603년(24세)에 문과에 합격하고 19년 후인 1622년(43세)에 소수서원에 입원했다. 서울에 사는 정세미((鄭世美, 1583-1624)는 1606년(23세)에 증광 생원시, 1608년(25세)에 문과에 합격하고 13년 후인 1621년(38세)에 소수서원에 입원했다. 서울 사는 안서우(安瑞羽 1664-?)는 1691년(27세)에 증광 생원시, 1694년(30세)에 문과에 합격하고 2년 후인 1696년(32세)에 소수서원에 입원했다. 영주에 사는 전익희(全益禧, 1598-1659)는 1624년(26세)에 문과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625년(27세)에 소수서원에 입원했다.  
 42) 풍기에 사는 김경원(金慶遠, 1589-?)은 1609년(20세)에 입원, 1617년(28세) 생원시 합격, 1649년(60세)에 문과 급제했고, 봉화에 사는 권극명(權克明, 1567-?)은 1586년(19세)에 입원, 1610년(43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4년(57세)에 문과 급제했다

고 파악된다.

넷째, 서원 입원 후 20년이 지나면 문과 급제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입원자의 연령이 고령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즈음보다 급제자의 연령폭이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과 급제자 가운데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 벼슬하지 않은 선비인 유학(幼學) 신분으로 문과에 진출한 사람은 15명으로 문과급제자 99명의 15%에 이른다. 이는 문과급제자 가운데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조선초기에는 15%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sup>43)</sup> 평균치임을 알 수 있다.

### 4.3 과거급제 연도

1543년에 설립된 백운동서원에 입원한 유생들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 313명을 대상으로 생원진사시 합격연도, 문과 급제자 99명을 대상으로 문과 급제 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과거급제 연도

연도	생원진사시 합격생			문과 급제생			비고 (입원생)
	명	% (312명 기준)	% (735명 기준)	명	% (99명 기준)	% (735명 기준)	
1530-1539	6	1.9	0.81	-	-	-	-
1540-1549	20	6.4	2.72	2	2.0	0.27	85
1550-1559	35	11.2	4.76	8	8.0	1.09	119
1560-1569	42	13.4	5.71	10	10.1	1.36	99

43) 문과와 사마시(생원·진사시)와의 관계를 보면, 원래 방침은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입원, 일정 기간의 수학을 마친 사람만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침에는 처음부터 예외가 허용되었으며, 그 예외는 후기로 갈수록 많아졌다. 그 결과 초기 약 100년 간에는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따라서 대개는 幼學으로서) 문과에 진출하는 사람이 전체의 15% 정도였는데, 말기 약 100년 간에는 오히려 생원진사시를 거처서 문과에 진출하는 사람이 훨씬 적어져 20%에도 미달하게 되었다. 宋俊浩, “문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17701&ty=2>}.

1570-1579	39	12.5	5.30	15	15.2	2.04	69
1580-1589	28	8.9	3.80	11	11.2	1.90	77
1590-1599	8	2.6	1.08	2	2.0	0.27	24
1600-1609	43	13.8	5.85	12	12.1	1.63	61
1610-1619	35	11.2	4.76	7	7.1	1.49	78
1620-1629	12	3.8	1.63	10	10.1	1.36	61
1630-1639	15	4.8	2.04	13	13.1	1.77	40
1640-1649	17	5.4	2.31	5	5.1	0.68	12
1650-1659	6	1.9	0.81	-	-	-	5
1660-1669	1	0.3	0.13	1	1.0	0.13	0
1670-1679	-	-	-	1	1.0	0.13	4
1680-1689	-	-	-	-	-	-	0
1690-1699	1	0.3	0.13	1	1.0	0.13	1
미상	5	1.6	0.68	1	1.0	0.13	-
계	313명	100%	42.5%	99명	100%	13.4%	

생원진사시 합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0년대를 제외하고는 소수서원으로 사액된 1550년 이후 1610년대까지 매년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1620년대부터 합격자 수가 매년 1~2명 정도로 줄더니, 1650년대 이후에는 2년에 1명꼴로 대폭 줄었다. 1670·1680년대에는 아무도 없다가 1690년대에 1명이 급제하였다. 문과 급제자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0년대를 제외하고 156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와 1630년대에는 매년 1명 이상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다가, 1650년대 이후 급제자가 급속히 줄었다. 이처럼 1650년대 이후 생원진사시 합격자와 문과급제자가 급감하는 것은 이 시기 서원 입원생의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조선시대 문관을 등용하기 위한 과거인 문과에는 3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문과(式年文科)와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임시 특설의 문과가 있었다. 비정규 문과에는 다시 증광별시(增廣別試)·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의 구별이 있었다.

식년문과에서는 초시(初試)<sup>44)</sup>·복시(覆試)·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을 거쳐

44) 초시는 성균관과 한성부(漢城府) 및 각 도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를 각각 관서(館試)·한성시(漢城試) 및 향시(鄕試)라고 불렀다. 문과 초시에서 뽑는 인원은 240인이었다. 그

33인을 급제자로 선발하였다. 국왕의 명의로 실시하는 전시에서는 복시 합격자의 성적 서열만을 결정하였다.

문과의 시험 과목을 보면, 초시·복시·전시 어느 단계에서나 모두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과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문학적 재능, 그리고 역시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논술(論述) 능력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사서의(四書疑)나 오경의(五經義)는 첫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고,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표(表)·전(箋) 등은 두번째 부류에, 그리고 전시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대책(對策)은 끝의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었다.<sup>45)</sup>

문과시험의 종류에 따른 급제자를 보면, 정규시험인 식년시는 3년에 한번씩 치러지지만 비정규시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소수서원 입원생 중 급제자가 있었던 문과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1543년부터 1696년까지 153년 동안 식년시는 24회에 44명이 급제했고, 별시는 17회에 21명이 급제했다. 알성시는 5회에 5명이 급제, 정시는 3회에 3명이 급제, 증광별시는 10회에 17명이 급제했고, 춘당대시는 1회에 1명이 급제, 친시도 1회에 1명이 급제했다. 이로써 정규시험인 식년시(24회)보다 비정규시험이 37회 시행되어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였다. 문과시험이 치러진 횟수를 보면, 1546년(1회), 1550년대(5회), 1560년대(7회), 1570·1580년대(8회), 1590년대(2회), 1600년대(7회), 1610년대(4회), 1620년대(6회), 1630년대(7회), 1640년대(4회), 1670·1690년대(1회)로 61회의 문과에서 99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므로 문과시험 2회당 3명꼴로 급제자를 배출했으며, 1561년, 1603년, 1630년에 치러진 식년시에서는 각 3명이 급제하였다.

---

내용은 관시 50인(이 관시는 뒤에 없어졌다.), 한성시 40인, 경상도 30인, 충청도와 전라도 각 25인, 경기도 20인, 황해도와 평안도 각 15인 강원도와 함경도 각 10 인이었다 그러나 33명을 선발하는 복시에서는 지역별 안배에 관한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급제자 배출에 지역 간 격차가 심하였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비중이 언제나 45%를 넘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5. 소수서원 입원생의 성향

### 5.1 학문적 성향

소수서원 입원생 가운데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한 유생도 상당수 있어 영남학맥에서 소수서원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안병길·김용현, “영남학맥과 퇴계학 : 영남학맥의 흐름과 인물”><sup>46)</sup>에 언급된 소수서원 출신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이황] -> 김언기 -> 남치리, 정사성, 백현룡, 권위, 박위장, 신지제, 권태일
- > 김극일
- > 김괄원(주세붕 문하)
- > 조목 -> 배용길, 임흠, 김택룡
- > 김룡
- > 구봉령
- > 정탁
- > 금난수
- > 권호문 -> 권기
- > 배삼익
- > 권문해
- > 김성일 -> 이개립, 김영조
- > 김륙
- > 김응훈
- > [류성룡] -> 김득연
- ↳ 정경세 -> 전이성

46) 안병길·김용현, “영남학맥과 퇴계학 : 영남학맥의 흐름과 인물”, 『退溪學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제13집(2002), 111-120.

- > 김복일
- > 이봉춘
- > [정구] -> 장현광 -> 신열도
  - ↳ 오여벌, 최동립
- > 김택룡
- > 남몽오 -> 박선장
- \* 한산두
- \* 정칙
- \* 홍여하 -> 김건

(->: 제자, [ ]: 소수서원 입원생이 아님, \* : 퇴계문하에 속하지 않음)

이를 볼 때 이황의 학문을 계승발전시킨 1대 제자들 중 상당수가 소수서원 입원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퇴계의 고제(高弟)로 조목, 김성일, 유성룡, 정구를 드는데, 이들 가운데 조목과 김성일이 소수서원 출신이며, 김성일은 퇴계의 학맥을 조선후기까지 이어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영남학맥에서 소수서원이 지니고 있는 학문적 위상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서원 입원생과 퇴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소수서원 입원록」과 「도산금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을 비교해 본 결과, 「소수서원 입원록」에 기재된 유생 가운데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여 「도산금문제현록」에 기재된 인물은 57명이었다. 이는 「도산금문제현록」에 수록된 이황의 제자 316명의 18%에 해당한다. 소수서원 입원생으로 퇴계 문하에서도 수학했던 57명은 다음과 같다.

신원록(申元祿, 호 晦堂), 김팔원(金八元, 芝山), 황수량(黃秀良, 錦澗), 김극일(金克一, 藥峯), 강륜(康崙, 月川), 이유(李愈, 梅村), 이종인(李宗仁), 문명개(文命凱, 省克齋), 곽한(郭瀚, 癡溪), 이국량(李國樑, 暘谷), 황응규(黃應奎, 松澗). 이문규(李文奎, 文谷), 김정헌(金廷憲, 訥巖), 민응기(閔應祺, 景退齋), 이재(李宰), 장수희(張壽禧, 果齋), 김득려(金得礪, 潛溪), 권수(權洙), 남몽오(南夢龍, 三松堂), 권문해(權文海, 草澗), 구봉령(具鳳齡, 柏潭), 박승륜(朴承倫, 桐原), 권호문(權好文, 松巖),

권대기(權大器, 忍齋), 정탁(鄭琢, 藥圃), 고응척(高應陟, 杜谷), 남사고(南師古, 格庵), 이중립(李中立, 龜溪), 이극승(李克承, 이녕 李甯, 慢浪), 여세윤(呂世潤, 西巖), 이열도(李閱道, 遇巖), 이희(李熹, 栗里), 김성일(金誠一, 鶴峯) 곽수인(郭守仁), 배삼익(裴三益, 臨淵齋), 금난수(琴蘭秀, 惺惺齋), 안계(安霽, 東臯), 권선(權宣, 城谷), 이교(李喬, 遠巖), 김늑(金玔, 柏巖). 남책(南滌, 瓶巖), 송복기(宋福基, 悔圃), 이봉춘(李逢春, 鶴川), 이종도(李宗道, 芝澗), 정사성(鄭士誠, 芝村). 구찬록(具贊祿, 松顔), 김윤흠(金允欽, 靑巒), 손흥례(孫興禮, 三省齋), 금응훈(琴應勳, 勉進齋), 백현룡(白見龍, 性軒), 손흥경(孫興慶, 鳴巖), 김윤명(金允明), 남치리(南致利, 賁趾), 금봉서(琴鳳瑞, 廬江).

이들 중 상당수가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거나 실천하고, 퇴계 사후에 퇴계의 학문을 수습하여 문집을 간행하는 등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선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황은 세속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과거 위주의 위인지학(爲人之學)보다는 자신의 심성을 닦고 학문에 정진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지향하여 이황 이후 영남에서 입신을 위한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정진하는 도학자들이 많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목(1524-1606)이다. 그는 29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문과를 포기하고 이황 곁에서 평생 학문에 전념했다. 그는 이황 사후 「퇴계선생언행총록」을 저술하고, 「퇴계연보」를 편찬하였으며, 「퇴계선생문집」을 간행했다. 저서로는 「월천집」과 「곤지잡록(困知雜錄)」이 있다. 이러한 공으로 1574년에 건립된 도산서원에 조목이 1615(광해군 7)년에 추가 배향되었다. 남치리(1543-1580년)는 1575년 여강서원에서 이황의 「이학통론(理學通論)」을 교정하고, 1578년에는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를 교정했다.

권기(1546-1624년)는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 실패하였다. 부친 사후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몰두하였으며, 류성룡의 권유로 안동 향토지인 「영가지(永嘉誌)」를 편찬했으며, 저서로는 「용만선생문집」 2권이 있다.

장현광(1554-1637년) 42세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20여차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여 주리(主理), 주기(主氣) 양론을 합한 도일원론(道一元論)을 정립했으며, 역학과 의학에도 밝았다. 저서로는 「여헌집(旅軒集)」

과 「성리설(性理說)」, 「역학도설(易學圖說)」 등이 있다.

민응기(1540-?)는 선조조에 「용학석의(庸學釋義)」를 저술하여 올리자 선조가 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권호문(1532-1587년)은 30세(1561년)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1564년에 모친상을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에 은거하였다. 경기체가인 독락팔곡(獨樂八曲), 연시조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을 남겼다. 고응척(1631-1605년)은 김범(金範)의 문인으로 1549년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고향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여 「대학」, 「주자혹문(朱子或問)」을 탐독했다. 남사고(南師古)는 역학(易學)·참위(讖緯)·감여(堪輿)·천문(天文)·관상(觀相)·복서(卜筮) 등 모든 학문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도참서인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과 「남격암십승지론(南格庵十勝地論)」이 정감록에 전한다. 편저에 「선택기요(選擇紀要)」가 있다.

또한 주세붕과 퇴계는 서원 건립을 통해 주자(朱子)의 학문을 부흥시키고, 이를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에 이어 1549년에 해주에 최충을 배향하는 수양서원을 건립하였다. 퇴계는 예안에 우탁(禹倬)을 배향하는 역동서원의 설립을 주도하는가 하면, 10여 곳의 서원 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書院記)를 지어 보내는 등 서원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sup>47)</sup>, 제자들이 그 일을 계승·발전시켰다.

서원을 창건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을 보면, 신원록(1516-1579년)은 장천(長川)에 빙계서원(氷溪書院)을 창건하는데 앞장섰고, 장수회(1516-1586년)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창건에 공이 많았다. 권문해(1534-1591년)는 안동부사가 되어 호계서원(虎溪書院)을 창건했으며, 김언기(1520-1588년)는 이황 사후 여강서원(廬江書院)을 세우고 백련사(白蓮寺)를 철거하여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데 노력했다. 김성일(1538-1593년)은 나주목사 시절 금성산 기슭에 대곡

47) 이황은 <서원십영(書院十詠)>에서 죽계서원, 임고서원, 문헌서원, 영봉서원, 구산서원, 남계서원, 이산서원, 서악정사, 화암서원에 대한 시문을 남기고 있으며 이산서원, 영봉서원, 역동서원, 화암서원에 대한 서원기를 남기고 있다. 채휘균, “조선시대 초기서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敎育哲學(한국교육철학회)』 제20집(2002), 179 ; 정만조(1997), 41.

서원(大谷書院)을 세워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제향했다. 금난수(1530-1604년)는 1599년 봉화현감으로 재직할 때 향약을 시행했으며, 도산서원·역동서원에서 사문지결(師門旨訣)을 강구했다.

## 5.2 정치적 성향

「소수서원 입원록」에 수록된 인물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경북 북부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인이 우세하였지만, 서인·북인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였다. 동인에 속하는 인물로는 선조조의 김성일을 들 수 있으며, 남인에 속하는 인물로는 정탁을 들 수 있다. 퇴계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구봉령은 이이(李珥)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여 서인에 속하였다. 인조조의 서인 김류, 효종조의 서인 이상일, 현종조의 남인 이육, 장현광을 들 수 있다.

김성일(1538-1593년)은 정치적으로 동인(東人)에 가담하였다가 1590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한 최영경(崔永慶)의 신원(伸冤)을 위해 서인(西人)의 영수 정철(鄭澈)을 규탄하였으며, 그 후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갈릴 때 유성룡·김우옹(金宇顛) 등과 입장을 같이해 남인이 되었다.

정탁(1526-1605년)은 임란 때인 1594년에 곽재우, 김덕령 등 명장을 천거했고, 1597년 3월 옥중의 이순신을 극력 친구하였다. 관직은 좌의정, 영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김류(金鑾)는 서인으로서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1620년 이귀(李貴) 등과 반정을 꾀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다시 1623년 거의대장(舉義大將)에 추대되어 이귀·이괄(李适) 등과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이 반정의 공로로 병조참판에 제수되고 곧 병조판서로 승진되어 대제학을 겸하는 동시에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후에 영의정에 올랐다. 김류의 학문은 서인 계열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이(李珥)·성혼(成渾)의 계열을 이었으며, 특히 송익필(宋翼弼)을 사사하였다. 반정에 성공한 뒤 노서(老西)·소서(少西)로 갈리자 신흠(申欽)·오윤겸(吳允謙) 등과 더불어 노서를 주도했으나, 서인과 남인을 같이 쓰려고 노력하였다

진사 광영(郭瓔)(1588-?)은 나고 자란 곳이 풍기로서 풍기는 유명경(1550-1608년)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황유중과 황유점은 유명경의 조카로서 이들과 친형제 이상으로 절친하였는데, 이이첨과 허균을 논핵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으로 보아<sup>48)</sup> 북인 가운데에서도 소북과 가까운 정치적 성향을 띤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소수서원에서 공부한 유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관직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켜 참전하고 군량미를 내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볼 수 있다. 즉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응규(1518-1598년)는 임란이 일어나자 양곡을 군량으로 바치고 향병대장(鄕兵大將)으로 추대되어 장정·군량을 모집하여 출전했다. 이윤(?-1592년)은 이이·조헌을 따라 학문을 연마했고,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청주에서 조헌과의 의병을 일으켜 승리하였고, 금산전투에서 조헌과 함께 순절했다. 백인국(1530-1613년)은 1592년 임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규합하여 권진(權鎭)과 합세하여 축산(丑山)에서 적을 격파하였으며, 외아들 민수를 곽재우 휘하에 보내 참전하게 하였다. 금난수(1530-1604년)는 정유재란 때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많은 선비들이 호응해서 참가하고 지방민들은 군량미를 헌납했다.

김성일(1538-1593년)은 1592년 형조참의를 거쳐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곽재우(郭再祐)를 도와 의병활동을 고무하는 한편, 함양·산음(山陰)·단성·삼가(三嘉)·거창·합천 등지를 돌며 의병을 규합하는 동시에 각 고을에 소모관(召募官)을 보내 의병을 모았다. 또한 관군과의 의병 사이를 조화시켜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김늑(1540-1616년)은 형조참의로 재직 중 임란 때 경상좌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대적하였다. 김득연(1555-1637년)은 김언기의 아들로서 임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미를 조달하였다. 배용길(1556-1609년)은 조목·김성일·류성

48) 「光海君日記」, 권128, 광해군 10년 4월 6일(甲子); 영주문화원 『榮州史料集』(영주 영주문화원, 2000), 328-337.

룡의 문인으로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켜 김해(金核)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부장으로 활약했다. 천문, 지리, 율력, 병전, 의약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고, 역리에 밝았다. 이처럼 소수서원 입원생은 정치적으로 동인과 남인이 주류이지만 서인과 북인 등 다양한 정파가 공존하였다. 한편 국가 위기상황인 임란과 호란 때에는 직접 전투에 나아가거나 혹은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사회에 본보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소수서원의 건립과 사액과정을 살펴보고 정책고문서인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을 대상으로 16·17세기 소수서원 입원생의 인적 구성, 입학연령과 과거 급제, 학문적·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소수서원 입원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혀보았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향교를 이건하고, 이어 주자의 학문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주자의 백록동서원의 예에 따라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후임 풍기군수인 이황의 요청으로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척신세력의 지원이 있었다.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에 수록된 1543년부터 1696년까지의 입원생 735명을 대상으로 입원 연도를 분석한 결과 입원생은 한 해에 평균 5명이 입학하였다. 입원생은 1550년대에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640년대 이후에는 급속히 줄었다. 출신지역은 제주도·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입원하였는데, 경북이 610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서원입원은 9세부터 59세까지 입원하여 이즈음보다 입원연령의 폭이 매우 넓었으며, 20대의 입원자가 가장 많았다. 생원진사시 합격연령은 14세부터 66세이고, 문과 급제 연령은 23세부터 60세로 이즈음보다 고령에도 과거시험에 도전하여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시험이 관료진출만이 목적이 아니라

급제 자체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었던 조선중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급제 정도를 보면, 입원생 735명 가운데 43%인 313명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했고, 13%인 99명이 대과에 급제했다. 대개 유생들이 소수서원에 입원한 후 20년이 지나면 38%가 생원진사시에 합격했고, 11%가 문과에 급제했다. 과거 급제연도를 보면 생원진사시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0년대를 제외하고는 1550년대부터 1610년대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3~4명이 합격하였고, 문과에는 156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평균 매년 1~2명이 급제하였다. 1650년 이후 급제자가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입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과는 정규시험인 식년시보다 비정규시험이 더 많이 시행되었으며, 1회에 1~2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소수서원 입원생들은 상당수가 퇴계의 제자로서 영남학파에 속하며, 소수서원 입원생들이 도산서원 창설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동인, 남인이 다수이지만 서인과 북인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였다.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지면 18-19세기 소수서원 입원생의 모습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원이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생산하고 축적한 1차 자료, 즉 입원생의 명단인 「입원록」이나 「유원록」, 원장과 유사 등 서원 임원의 명단인 「경임안(經任案)」이나 「임사록(任事錄)」, 서원의 재정에 관한 자료인 「부보록(裒寶錄)」 등 고문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전통교육기관인 서원 연구를 한 단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문서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서지학의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紹修書院入院錄(필사본)」, 「紹修書院謄錄」, 「高麗史」, 「經國大典」, 「太宗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增補文獻備考」, 「陶山及門諸賢錄」, 「文科榜目」, 「司馬榜目」
-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 「國譯 竹溪志」. 영주: 영주시, 2002.
- 「국역 퇴계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8.
- 영주문화원. 「榮州史料集」. 영주: 영주문화원, 2000.
- 榮州市. 「國譯 紹修書院雜錄」. 영주: 영주시, 2005.
- 權相老. 「韓國地名沿革考 : 地名變遷辭典」. 서울: 동국문화사, 1961.
- 박석홍. “신재(愼齋) 선생과 紹修書院”, 文敏公 愼齋 周世鵬先生 誕辰500 週年 追慕學術大會 발표문. 1994.11.26.
- 안병걸·김용현. “영남학맥과 퇴계학 : 영남학맥의 흐름과 인물” 「퇴계학연구(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제 13집 (2002). 107-233.
- 이성무, 「한국과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1997.
-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서울: 집문당, 1997.
- 鄭鎭炯. “도산서원 소장 「소수서원 입원록」 해제”. 「退溪學研究(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제7집(1993.11).
- 이수환. “서원건립활동”. 「한국사」2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채휘균. “조선시대 초기서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教育哲學(한국교육철학회)」 제20집(2002), 173-187.